

9월 중앙공모 국비 확보

전북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등 16개 사업 1233억

전북도는 올해 9월중 중앙공모사업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16개 사업 국비 1,233억을 확보했다. 지난 5일 전북도에 따르면 9월중 공모사업에 농촌중심지 활성화(무주, 168억원),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군산, 250억원), 등이 선정되어 국비 1,233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연초 2018년 중앙공모사업 대응 계획을 수립, 발굴·기획 단계부터 중앙부처 사업효과성에 중점을 둔 맞춤형

사업 계획을 마련, 발표평가 및 심사 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이다. 이로써 전북도는 2018년도 중앙공모사업(1~9월)에서 총 105건의 중앙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954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공모사업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무주, 168억원),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군산, 250억원), 첨단교통관리 체계(ATMS)구축(전주, 12.3억원)이다.

이밖에 들녘 경제체 육성 사업(8개 시군, 39억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46억원),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6억원) 등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10월에는 9건, 855억원 규모의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 및 대면심사, 현장평가 등에 철저히 대비하여 공모사업 선정률 제고를 위해 정칙권 협조 요청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별 선정 전망분석과 단계별 평가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지난 5일 전북교육청과 전북도가 '2018년 제2회 교육행정협의회'를 연 가운데 소규모학교 급식비 추가지원에 합의, 증서를 보이고 있다.

내년 도내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 급식비 인상

전북교육청·전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6개 안건 합의

전북교육청과 전북도가 도내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을 다짐했다. 또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 급식비 추가 지원도 합의했다. 지난 5일 도교육청과 전북도는 정병익 부교육감과 김승일 행정부지사 공동 주재로 '2018년 제2회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전북교육청이 제안한 3개 사업과 전북도가 제안한 6개 사업 등 총 9개 안건이 논의됐다. 전북도교육청은 △무상 급식의 질적 성장 추진 △일일반회계 전입금 세출에

산 편성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조속한 설치 및 조례 제정 이전 미전입금 전출 추구를 안건으로 올렸다. 전북도에서는 △2018 전국(장애인) 체전 공식행사 지원 △교사 스카우트 지도자교육(특수기관 직무연수) △2023 세계잡버리대회 참가대원 발굴·육성 캠프 △학생 승마 체험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단가 인상 협조 요청 △학교급식의 지역농산물 사용 확대 등 6건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무상 급식의 질적 성장 추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조속한 설치 및 조례 제정 이전 미전

입금 전출' 등 2건은 일부 합의, '학교급식의 지역농산물 사용 확대' 건은 지속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전북교육청과 전북도가 소규모학교 급식비 추가지원에 합의하면서 50명 이하 학교는 1인당 400원, 51~100명 이하 학교는 300원을 추가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른 추가재원은 약 11억원으로 교육청과 지자체가 5:5로 분담기로 했다.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발전 및 학생과 도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군산지역 근대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학교법인 광동학원 설립 68주년 기념행사'가 지난 5일 군장대학교에서 열렸다.

창조적 인간교육 통한 인재육성 산실

학교법인 광동학원 설립 68주년 기념행사 진행

군산 근대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학교법인 광동학원 설립 68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지난 5일 군장대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부덕 광동학원 이사장, 이승우 군장대학교 총장, 김동봉 중앙고등학교 총동창회장, 이성근 중앙고등학교 장학회 이사장 및 중앙중고등학교, 군장대학교, 국제디지털대학교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부덕 이사장은 격려사에서 "우리 미래의 발전은 인간의 창조적 능력 개발에 의한 가치 창조로서의 글로벌 인재양성이 광동학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자 비전"이라며 "교직원 모두가 학생들의 창조적 능력 발휘를 위한 창조교육의 실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해 달라

고 당부했다. 이어 이승우 총장은 "학원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은 4개교 교직원들에게 깊이 감사의 드린다"며 "학창이중록 박사님의 숭고한 민족애와 교육애를 계승해 창조교육의 도량인 광동학원의 전통과 명맥을 더욱 빛내고 새롭게 나아가고 있는 광동학원 교직원들이 되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법인 광동학원은故 학창이중록 선생께서 광복과 6.25전쟁을 거치면서 국가 재건과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육성이라며 1950년 군산 광동중학교를 초석으로 '창조적 인간교육'을 통한 인재육성의 산실로 설립됐다. /군산=김정훈 기자

곰들의 서식환경 개선

전주동물원 곰사 새단장

전주동물원의 곰사 새단장을 했다. 낡고 오래된 콘크리트와 쇠창살로 둘러싼 공간에서 생활하던 곰들이 10배 가까이 넓어진 자연서식 환경을 갖춘 새로운 보금자리를 갖게 됐다. 전주시는 그간 전주동물원에서 가장 열악했던 동물보금자리로 평가됐던 곰사를 곰들의 본래 서식환경에 가까운 생태적인 동물사로 조성하기 위한 '전주생태동물원 곰사 신축공사'가 막바지 공사에 돌입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전주동물원은 마지막 단계로 새로운 보금자리 적응을 위한 곰 방사훈련에 돌입한다. 동물원은 2개의 내부방사장부터 방사훈련을 시작해 3개의 야외방사장 순으로 10마리의 곰들을 대상으로 입사와 방사를 반복,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동물마다 새로운 동물사에 적응하는 기간을 약 한 달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육사는 매일 시시각각 곰들의 반응과 시설물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면서 곰들이 새로운 방사장 공간 인식과 안전시설물, 놀이시설물 등 환경에 적응하도록 입·방사 방법, 사육관리 등 적절한 관리를 한다. 방사훈련 기간 안전시설물과 놀이시설물 등에 문제점이 생기면 약 한 달에 걸쳐 충분히 보완하고 적절한 먹이 공급과 생태설명회 등을 통해 운영방법을 결정한다. /송효철 기자

전북도, 도시계획

업무역량강화 워크숍

전북도는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장수군 나불리조트에서 도와 시·군 도시계획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52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도시계획 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사회 및 생활환경의 변화로 주민들의 도시계획에 대한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비와 규제개혁 등을 통해 국민의 사유재산권 침해해 해소하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 여기에 맞는 맞춤형 행정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도·시군 간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 전북도 김은영 법제협력관의 알기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관련 특강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속한 정비, 국토 및 도시계획 관련 질의회 등 도시계획 분야를 교육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김진성 기자

내년 보통교부금 증액

도교육청, 예정교부액 2조8564억으로 2247억원 ↑
본예산 올해보다 1300억원 늘어난 3조4457억 예상

전북교육청의 내년도 살림살이가 올해보다 나아질 전망이다. 7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각 시도 교육청에 내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을 배분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의 내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은 2조8564억원으로 올해보다 2247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는 원아수 감소에 따라 올해보다 84억원 감소한 1301억원이 예정교부 됐다. 이같은 기준을 적용했을 때 내년도

전북교육청 본예산은 올해 3조3157억원 대비 1300억원 늘어난 3조4457억원 규모로 전망된다. 그러나 올해 본예산에 도청으로 전출한 762억원이 포함된 만큼 실질적으로는 2000억원 이상 증액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 예정교부액은 55조7431억원으로 보통교부금 54조1687억원, 특별교부금 1조 5744억원이다. 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는 3조7440억원 규모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활기차고 행복한 농어촌을 만드는 글로벌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지사장 신 교 준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